

## 알면 바뀔까?

- 패트리샤 힐 콜린스와 시르마 빌게의 『상호교차성』

김새롬\*

한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인구집단 간 건강 격차(gap), 차이(disparity), 형평(equity)을 확인하는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건강형평성 지식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형평에 대한 사회 전반, 적어도 학계의 관심이 강화되고, 가용한 자료원이 많아지는 한편 분석 역량이 개선되었으며, 신자유주의적 학술실적 평가체계가 전면화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건강은 주로 결과 변수로 활용되는데, 개 개인이 살아가며 겪는 불평등의 총체가 점점 더 몸에 배태(embedded)·체현(embodied)·각인(imprinted)되어 인구집단 간 건강 격차로 드러난다는 설명(Hertzman and Boyce, 2010; Williams, 2002)이 그 가운데에 있다. 이런 설명은 건강을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최종 심급으로 설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박탈로 인한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측정가능한” 흔적으로 몸에 남는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sup>1</sup>은 오래된 개념이지만 보건학 영역에서는 주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지역에서 건강형평성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도입, 활용되어 왔다. 2008년 학술지 비판 건강정책(Critical Public Health)에 실린 연구에서 Hankivsky<sup>2</sup>와 Christoffersen(2008)은 2000년대 이후 젠더, 인종, 성적 지향, 계급 등 인구집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 비해 실제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이들이 보기에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는 개입 전략을 도출하려면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이 어떻게 서로 관계, 교차, 상호강화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각각의 건강 결정요인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데에 그칠 뿐, 맞물려 작동하며 불평등을 재생산해내는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건강형평성 지식이 더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구집단 건강에 대한 연구가 상호교차성의 이론적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Hankivsky and Christoffersen, 2008).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saerom.rb@gmail.com)

이 서평은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진행한 상호교차성 공부모임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평을 작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학술위원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국내에서는 Intersectionality를 교차성 또는 상호교차성으로 번역하며, 이 글에서는 역자의 번역어를 따라 상호교차성으로 쓴다.

2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Simon Fraser University) 공공정책과 교수, 보건학 영역에 교차성 개념을 소개하는 이론적 연구를 출판하였으며, 캐나다 보건부(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가 2022년 발표한 “건강형평성 분석에 교차성 이론 통합하기”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교차성 기반 정책 평가틀(intersectionality-based policy analysis framework, IBPAF)을 개발했다.

영미 맥락에서 상호교차성 개념을 활용하는 건강 연구는 지난 20여 년 사이 빠르게 주류화되었다. 최근에는 보건학 내에서 상호교차성 개념이 지나치게 평평하고 탈정치화된 방식으로 제도화된 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권력, 사회 정의, 실천(praxis)에 관심을 두는 상호교차성 이론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미국 공중보건학회지(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는 상호교차성을 주제로 한 특별 코너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를 상호교차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논문들을 실었다. Bowleg(2021)는 미국 보건학에서 상호교차성이 네 번째 파도(wave)<sup>3</sup>인 상호교차적 실천(intersectionality praxis)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범유행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여 상호교차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학술적 작업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건강형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집단적 실천의 도구로서 “교차적 실천을 급진적으로 다시 상상하기”를 요구하는 저항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Bowleg, 2021).

이에 비해 한국의 보건학 및 건강형평성 영역에서 상호교차성은 아직 본격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건강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연구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건강형평성 지식의 이론적 기반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공간도 그리 넓지 않다. 한국 건강형평성학회가 <한국건강형평연구>를 창간한 것은 이런 공간을 넓히기 위한 시도이기에 창간호에 주어진 지면을 빌어 상호교차성을 소개하는 개론서로 패

트리샤 힐 콜린스와 시르마 빌게가 쓴 『상호교차성』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폴리티 출판사의 핵심 개념(Key Concepts) 총서 중 하나로 인종과 젠더의 상호교차하는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전시킨 저작 『흑인 페미니즘 사상』(1990)으로 널리 알려진 패트리샤 힐 콜린스와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시르마 빌게가 쓴 짧은 단행본이다. 서문에서 저자들은 이 책이 상호교차성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소수의 전공자를 넘어 더 넓은 독자층을 상호교차성으로 초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들이 속해있는 영미의 맥락에서도 학술과 제도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상호교차성과 실천주의와 지역 공동체의 언어로 호명되는 상호교차성이 응당 그러하여야 할 만큼 교류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에 이어, 책의 쓸모를 두 영역을 연결하고 공통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배치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으로서 최초의 미국 사회학회의 100대 회장을 역임한 저명한 학자인 콜린스와 비교적 학계에 몸담은 시간이 길지 않은 빌게가 약 2년간 대화를 주고받으며 작성한 저작이라는 점 역시 이 책을 작성하는 과정 그 자체가 상호교차적인 실천이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술술 이 글의 독자들은 그래서 상호교차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저자들은 사람들이 상호교차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대체로 합의할 수 있는 상호교차성의 너른 정의로 다음을 제시한다.

3 Bowleg(2021)은 미국 보건학에서 상호교차성은 네 번의 파도를 거쳐 도입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파도는 상호교차성의 역사와 핵심 교리, 보건학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개념 정의(on definition and history) 단계, 두 번째 파도는 미 국립보건원 등 주요 국가기관과 학계에서 상호교차성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연구자들이 비판적 분석과 활동, 실천을 위해 개발된 상호교차성의 틀을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 내에서 주류화(mainstream research travel)하는 단계, 세 번째 파도는 분석적 도구로서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as an analytical tool)을 활용하는 단계, 네 번째 파도는 건강 위기 상황에서 주변화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형평성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적용으로 상호교차적 실천(intersectionality praxis) 단계다.

---

상호교차성은 세계, 사람들, 그리고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나 자신과 사회적, 정치적 삶의 사건이나 조건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상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많은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과 권력은 인종, 젠더, 계급 등 사회를 나누는 하나의 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축에 의해 형성된다. 상호교차성은 분석 도구로서 사람들이 세계와 자신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p. 22. 저자 윤문).

저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책의 관심사가 상호교차성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상호교차성이 무엇을 하는지에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목적에서 책은 상호교차성이 활용되는 방식을 폭넓게 소개하면서 비판적 탐색과 실천을 위한 분석적 도구로 상호교차성의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비판적 지식 생산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에게나, 복잡한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하는 실천에 몰두하는 활동가에게나 상호교차성은 중요한 도구다. 상호교차성은 연구와 실천 모두에서 맞물려 작동하는 억압의 체계(interlocking systems of oppression)를 해체하기 위한 비판의 틀을 제공한다. 인종, 젠더, 성적 지향,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위계가 상호적으로 구성하는 위치가 법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특권과 박탈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FIFA 월드컵에서 권력의 작동방식을 자세히 살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화적, 규율적, 상호관계적 차원을 드러내는 작업이나,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자본주의와 국가 권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맞서는 브라질의 흑인 여성 운동인 라티니다데스 축제를 의미화

하고 해석하는 활동 등 다층적 층위와 넓은 영역에서 상호교차성이 분석 도구로서 유용한 틀이라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사회학자 보니 쏘튼 딜(Bonnie Thornton Dill)의 작업에서 인용하는 상호교차적 연구의 원칙(doctrine)은 건강형평성 연구들이 취해왔던 인권기반 접근(human right based approach) 혹은 사람중심관점(people-centeredness)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첫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경험과 투쟁에서 탐구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상호교차적 지식과 이론은 마땅히 그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권력강화(empowerment)하는 실천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p. 69-71). 저자들이 상호교차성 틀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핵심 아이디어로 제시하는 ① 사회 불평등, ② 상호교차하는 동시에 상호구성하는 권력관계, ③ 관계적 사유, ④ 사회 맥락, ⑤ 복잡성, ⑥ 사회 정의 역시 건강형평성 지식에서 정책 과정의 맥락과 권력 역동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Friel et al., 2021; Harris et al., 2020; Topp et al., 2021)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도 볼 수 있다.

건강형평성 연구는 인구집단 사이의 불평등하고 회피할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는 건강 격차를 해결해야 할 목표로 삼고 이를 줄이기 위해 돈, 권력, 자원의 분배를 바꾸기 위한 지식에 초점을 맞춰왔다(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08). 그러나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범주와 맥락,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 특성과 성별, 젠더, 인종, 장애, 성적 지향과 같이 건강 격차가 확인되는 각각의 범주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과정이나 각각의 범주가 상호교차하는 과정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하며 차이가 발생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건강형평성 학술공동체의 과제라는 데에 동의한다면, 상호교차성을 관점으로, 또 분석 도구로 적극적으로

---

활용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건강형평성을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서 상호교차성을 고민한다면, 상호교차성을 정체성 이론 및 정치와 동치하는 입장과 그에 대한 저자들의 반박에 대해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 책의 5장 <상호교차성과 정체성>에서 저자들은 정체성 정치의 이론적 토대로 상호교차성 비판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할애해 이를 반박한다. 상호교차성 접근이 정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집단을 끊임없이 더 작은 하위집단으로 파편화한 결과 공동의 정치적 연대를 훼손하는 분리주의를 승인하고, 경제적 분배보다 문화적 인정에 더 가치를 둬으로써 박탈당한 집단의 물질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허물어뜨리며, 정체성 정치를 통해 피해자 정치(victimhood politics)를 부추긴다는 비판 등이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비판적 실천으로서 상호교차성과 정체성 정치가 권리를 박탈당한 집단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본질주의(strategic essentialism)를 택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치적 전술로서 타당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Spivak, 1996). 교차하는 정체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분리주의로 파편화되는 대신 각각의 정체성을 연대의 전제가 되는 서로 다른 위치로 개념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상호교차성 연구는 앨리슨 위어(Allison Weir)의 논의대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동일시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연대를 통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사회를 바꾸는 정체성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적 기반을 넓혀나가기 위한 상호교차성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체성 정치가 상호교차적 기획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흥미롭다. 정체성 정치가 박탈된 권리와 교차하는 억압을 드러내려다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 가능성을 놓쳐버리고 파편화된 집단 각각의 피해자성을 강조하고 경쟁하는 부정적인

정치로 미끄러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체성 정치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과도하며, 상호교차성 개념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수용할 이유는 없다. 대신, 복잡하고 맥락 의존적인 억압의 매트릭스(matrix of oppression)를 그 억압의 구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며 이를 열어내는 출발점으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활용하자는 것이 저자들의 제안이다.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더 좋은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한, 이런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 2013)가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작동을 각각 살펴서는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흑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교차적 억압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념화한 상호교차성 논의가 한국의 건강형평성 연구에 얼마나 잘 맞을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해외에 비해 사회학, 여성학 등 다른 학제와의 협력 및 교류의 수준이 낮고, 과정과 원인을 탐색하는 질적 접근보다 결과로써 나타나는 격차에 주목하는 양적 접근이 주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차적 불평등을 이론적·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할만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과 정치에 있어서 상호교차적 관점의 가능성은 이미 발견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가 2021년 쓴 칼럼은 이미 시작된 상호교차성의 정치를 간명하게 보여준다(비마이너, 2021).

“페미니즘은 여성의 요구가 아니라 여성의 위치에서 제기하는 존엄과 권리의 요구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 학력, 비정규직 차별에도 맞서는 언어가 된다. 페미니즘을 노동의 언어, 변혁의 언어로 투쟁의 중심에 놓는 책임은 여성이나 페미니즘만의 몫이 아니다. 페미니즘을 생존의 언어로 삶에 새긴 여성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세계의 근간으로 만

---

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다.”

미류의 말처럼 여성의 위치에서 그려내는 불평등의 구조와 기제는 교차해 작동하고 재구성되는 다른 차별들에 맞서는 지식과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 사회를 보다 존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들은 이미 상호교차의 연대를 현실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해를 넘겨 지하철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에서 홈리스 야학의 로즈마리 학생회장의 발언은 그 살아있는 예시다(비마이너, 2023).

“장애인 투쟁 덕분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생겼다. 여성홈리스는 짐이 많아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한다. 이동권 보장은 걸음이 느리고, 아프고, 가난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우리 모두의 권리다.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함께 투쟁하자”

상호교차성 개념은 건강형평성 지식의 정치적 성격을 회복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대체로 보건학과 건강 영역에서 기존의 상호교차성 연구들이 질적 접근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사회 역학 연구 등 양적 접근에서 상호교차성 관점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Mandelbaum, 2020). 다수준분석과 같은 기존 양적연구 방법론에 상호교차성의 이론을 결합해 개인이질성과 구별정확도를 파악하는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heterogeneity and discriminatory accuracy, MAIHDA) 같은 새로운 방법(Evans et al., 2018)은 물론 Kitagawa-Oaxaca-Blinder 분해처럼 잘 알려진 방법론을 상호교차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활용한 연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Sochas, 2021).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명시적으로 보건과 의료에

대한 연구를 사례로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으니 보건학 연구 사례를 기대하며 책을 펼쳐서는 곤란함을 경고한다. 상호교차성의 정치적 의미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괄하는 과정에서 상호교차성 접근 주류화에 기여한 보건학 연구가 통째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

## 참고문헌

- 비마이너(2021.07.15.),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비마이너, 2021년 7월 15일.
- 비마이너(2023.01.20.), “삼각지역 또 답송 거부, 장애인은 휠체어에서 몸 던져 지하철 탔다”, 비마이너, 2023년 1월 20일.
- 패트리샤 힐 콜린스, 시르마 빌게, 2016(2020), 『상호교차성』, 이선진 역,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Bowleg, L., 2021, “Evolving intersectionality within public health: From analysis to ac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1(1), 88-90.
- Crenshaw, K., 2013,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In K. Maschke (Ed.), 『Feminist Legal Theories』, New York : Routledge, 23-51.
- Evans, C.R., Williams, D.R., Onnela, J.P., & Subramanian, S.V., 2018, “A multilevel approach to modeling health inequalities at the intersection of multiple social identi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203, 64-73.
- Friel, S., Townsend, B., Fisher, M., Harris, P., Freeman, T., & Baum, F., 2021, “Power and the people’s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282, 114173.
- Hankivsky, O., & Christoffersen, A., 2008. “Intersectionality and the determinants of health: a Canadian perspective”, *Critical Public Health*, 18(3), 271-283.
- Harris, P., Baum, F., Friel, S., Mackean, T., Schram, A., & Townsend, B., 2020, “A glossary of theories for understanding power and policy for health equity”,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74(6), 548-552.
- Hertzman, C., & Boyce, T., 2010, “How experience gets under the skin to create gradients in developmental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1, 329-347.
- Mandelbaum, J., 2020, “Advancing health equity by integrating intersectionality into epidemiological research: applications and challenges”,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74(9), 761-762.
- Spivak, G.C., 1996, “Subaltern studies: deconstructing historiography (1985)”, In D. Landry and G. Maclean (Ed.), 『The Spivak Reader』, New York: Routledge, 203-236.
- Sochas, L., 2021, “Challenging categorical thinking: A mixed methods approach to explaining health inequali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283, 114192.
- Topp, S.M., Schaaf, M., Sriram, V., Scott, K., Dalglish, S.L., Nelson, E.M., et al., 2021, “Power analysis in health policy and systems research: a guide to research conceptualisation”, *BMJ Global Health*, 6(11), p.e007268.
- 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08,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illiams, D. R., 2002, “Racial/ethnic variations in women’s health: the social embeddedness of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4), 588-597.